

# 부문별 주요 기사

11월 1일~11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 부문별 주요 기사

11월 1일~11월 30일

---

### 대내경제 85

#### 〈시장화〉

- 중국 단동과 북한 경제
- 증가하는 휴대전화 이용자 수와 고전하는 휴대전화 사업자
- '돈주'로 등장하고 있는 화교
- 소매거래 장으로 떠오르는 북한 학교

#### 〈식량 및 영양〉

- 여전히 영양부족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북한

#### 〈경제 성과〉

- 부문별 10월 경제성과 발표

#### 〈경제개발구〉

- 두만강 지역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과 중국
- 나진선봉 특구에 18조원을 투자할 방침인 북한

#### 〈기타〉

- 북한, 첫번째 전국 결핵 실태 조사 실시
- 

### 대외경제 89

#### 〈관광〉

- 북한 관광 산업 현황
- 중 춘추항공, 상하이-평양 항공 노선 신청

〈무역〉

부진한 북한의 2015년 대외무역

〈북중관계〉

계속해서 감소하는 북중무역 및 중국의 대북투자

지속적으로 건설 중인 북중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대교

〈기타〉

북한으로 진출하는 해외언론 및 인터넷통신국을 착공한 북한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

## 남북교류 93

〈개성공단〉

땅사용료로 갈등을 빚는 개성공단

## 대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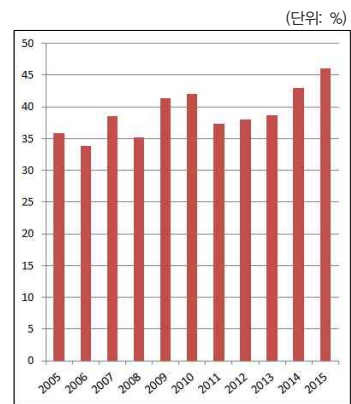
### 〈시장화〉

Forbes(10.29), Radio Free Asia(11.17), 중앙일보(11.17, 11.24), 연합뉴스(11.19), 노컷뉴스(11.24)

#### 중국 단둥과 북한 경제

북중 간 무역에서 동북3성, 특히 요녕성은 전체 북중무역에서 40~45% 가량을 차지하는 요충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그런데 최근 요녕성의 단둥지역과 북한 신의주 지역 간의 미시적 경제교류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단둥 세관 앞에는 북한에 식생활품을 비롯한 건설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기다리는 여러 대의 트럭들이 관찰됨. 뿐만 아니라 북한 사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돈주들도 단둥에서 자주 목격됨. 한 관찰자에 의하면 돈주들은 북한무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도 병행한다고 전해짐. 또한 단둥에서 운영되는 의류 및 수산물 가공 공장들은 북한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전체 북중무역 중 요녕성의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증가하는 휴대전화 이용자 수와 고전하는 휴대전화 사업자

최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며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도입되었다고 함. 국가정보원이 북한 휴대전화 보급대수를 370만대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의 스마트폰인 ‘평양타치’를 통해 모바일 거래로 물건을 주문하고 지불카드인 ‘나래’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전해짐.

한편 이와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의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운영 중인 고려링크의 국유화 우려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음. 오라스콤은 국제 사회의 제재로 북한 내 수익을 달러로 바꿔 이집트로 보내지 못해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15일 고려링크를 계열사에 분리해 협력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돈주’로 등장하고 있는 화교

최근 몇 년새 북중무역이 활발해 지고 장마당이 활성화 되면서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가 ‘돈주’로 등장하고 있음. 북한에는 화교가 약 8,000~1만명 정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버섯·해산물 등 인기상품을 중국으로 들고 나가 북한에 들어올 때는 전자제품·의류 등을 무관세로 가져와 ‘장마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해짐. 특히 이들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고 있어 어느 정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함.

### 소매거래 장으로 떠오르는 북한 학교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최근 “씨비”라고 불리는 소규모 생필품 거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비교적 암시장보다 신뢰가 가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거래를 선호한다고 함. 교사가 물물거래에 있어 중간 거래자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 발생 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며, 학부모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 및 가격을 기록한다고 함.

---

## 〈식량 및 영양〉

노컷뉴스(11.3), 한국경제(11.3), news1(11.6), NEWSIS(11.16).

### 여전히 영양부족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북한

북한이 지난 봄부터 이어진 가뭄의 여파로 가을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주요 작물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10~15% 줄어들 것이라 전망한 바 있음.

일본의 북한매체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북한의 국경경비대에는 한 끼에 150g의 강냉이 밥과 무, 염장과 시래기국만 공급되어,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는 군인도 있다고 함. 또한 세계식량계획(WFP)의 다미안 킨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지난 3일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힘.

세계식량계획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예정이었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함.

---

## 〈경제 성과〉

노동신문(11.1), 민주조선(11.6)

### 부문별 10월 경제성과 발표

「민주조선」(2015. 11. 6)은 10월 부문별 경제성과를 게재함. 하지만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각 부문별 분야 및 기업소 중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함. 내년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목표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민주조선」에 보도된 부문별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015년 10월 경제실적

부문	경제실적
수산성	- 수산물생산계획: 114.9% · 함경북도수산물생산계획: 108.3%
건설건설재공업성	- 건설조립액계획: 115.4% - 시멘트생산계획: 101% - 판유리생산계획: 111.6%
철도성	· 함흥철도국: 129.4%
기계공업성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106.7%
채취기계공업국	- 인민경제계획: 110% · 안주평프공장: 167.7% · 동림전기공장: 176.6% · 사리원광산기계공장: 2배 이상 · 장산전기공장: 127.3%

한편 11월 1일 「노동신문」에서는 육류 및 알류 등 축산업관련 생산실적이 지난해동기대비 10%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 〈경제개발구〉

노컷뉴스(11.3, 11.5), 한겨레(11.19), 한국경제(11.19)

### 두만강 지역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과 중국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경제개발구 중 하나인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됨.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지난 9월 1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온성섬 관광개발구에 새 도로가 뚫리고 기존 도로가 보수되는 모습이 감지됐다고 전함.

한편 중국 정부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두만강 국제관광구 사업을

지린성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러시아 관광청도 지난 2월 두만강 하구의 국제관광구 조성안을 승인한 바 있어, 북중러 3각 국제관광구 조성사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나진선봉 특구에 18조원을 투자할 방침인 북한**

북한은 18일 공식 포털사이트인 '내나라'를 통해 나선경제특구 투자 관련 구체 계획을 공개함. 이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9곳의 산업구와 10곳의 관광지를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두 154억 8068만달러(18조원)를 투자할 방침임. 이번 개발계획은 투자 관련 50여 개의 법규 및 개발 대상, 세금정책,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7개 분야의 계획을 공개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특징이 있음.

다만 김정은이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 보여주기'식의 구상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수도 전력 및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는 불안요소가 있음.

---

## **<기타>**

### **Voice of America(11.18)**

#### **북한, 첫번째 전국 결핵 실태 조사 실시**

UNICEF는 북한이 전국적인 결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 결핵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함. UNICEF 대변인인 앤드류 브라운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지난 10월 결핵 서베이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중반쯤 해당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함. 또한 동 서베이 작업에는 WHO, UNICEF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 서베이는 57개의 도시와 38개의 농촌 지역에서 70,000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결핵 증상 등에 대한 인터뷰부터 흉부 X-ray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UNICEF는 동 서베이의 결과를 내년 말쯤 발표할 예정임.

---



## 대외경제

### 〈관광〉

CNBC(11.11), 东方网(11.23), South China Morning Post(11.29)

#### 북한 관광 산업 현황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이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30.6~43.6백만달러 정도임. 북한은 최근 2020년까지 200백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마식령 스키 리조트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북한 관광객 수는 10만명 정도이며, 대부분은 중국인이라고 함.

#### 중 춘추항공, 상하이-평양 항공 노선 신청

이렇게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새로운 항공 노선 개발이 촉진되고 있음. 중국 춘추항공(Spring Airlines)은 상하이-평양 노선 정기운항을 추진하고 있음. 춘추항공은 내년 2월부터 매주 4차례 상하이에서 평양까지의 에어버스 A320 운영을 중국 항공 당국에 신청하였음.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상하이에서 북한에 가기 위해 북경에서 환승하지 않아도 됨. 현재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은 중국국제항공사가 1주일에 두 번 운행하는 북경-평양 노선이 있으며, 같은 노선을 고려항공에서는 1주일에 다섯 차례 운행하고 있음.

### 〈무역〉

연합뉴스(11.4, 11.6)

#### 부진한 북한의 2015년 대외무역

북한 대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북중무역이 최근 들어 크게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과 EU 및 미국과의 교역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U 집행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북한과 EU의 무역액은 3,500만유로(436억 4천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약 76% 줄었음. 이는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가 중단됨에 의한 수치임. 한편 2015년 1~3분기 북한과 미국의 무역액은 445만 8천달러(51억 6천만원)로, 작년 동기 대비 79.5% 줄었음. 이 수치는 전적으로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으로 대부분 지원품목

이며,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0'임.

## 〈북중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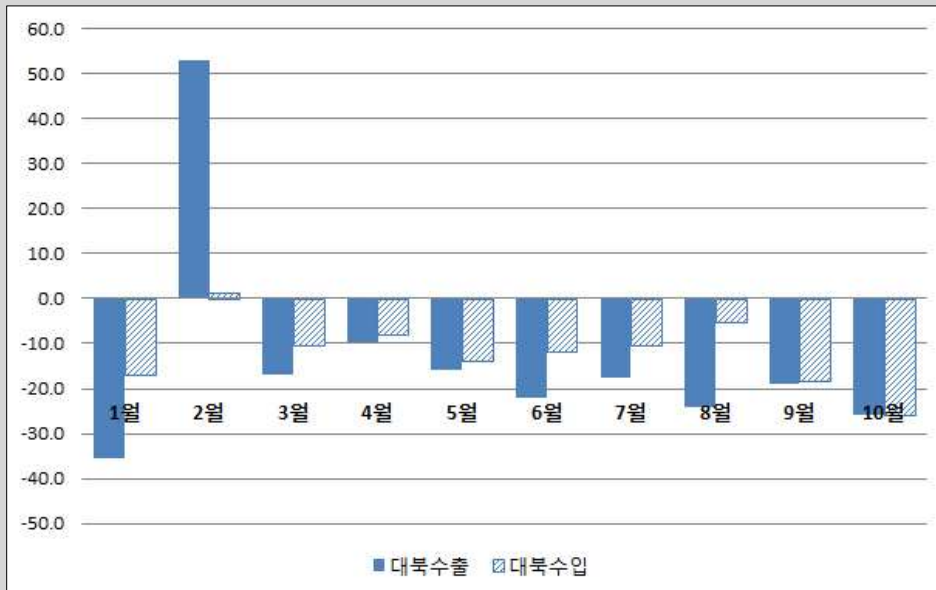
연합뉴스(11.6), Voice of America(11.11)

### 계속해서 감소하는 북중무역 및 중국의 대북투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중무역 및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11.7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동기대비 10.6% 가량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수출액도 15.8% 가량 하락한 13.3억달러임. 이러한 북중무역의 감소 원인을 중국의 경제 성장 지체 때문이라고 설명함. 반면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인 무연탄 및 철광석의 가격 하락이 해당 상품의 수출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함.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12년 1억 1,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됨.

〈중국의 대북무역 증감율〉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지속적으로 건설 중인 북중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대교

아직 개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완성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에 이어 중국 훈춘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내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임. 대교 건설에 필요한 1억 4,700만위안(약 262억원)을 모두 중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두만강대교는 549m,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현재 주교량 기초 공사가 끝나고 주교량 받침대 8개가 설치된 상황이라고 함. 기존 두만강대교는 1936년에 건설된 다리로 교각이 흔들리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 작년 9월부터 새 대교 건설이 시작된 바 있음.

---

## <기타>

新華網[신화망](11.7), Voice of America(11.24), 연합뉴스(11.26)

#### 북한으로 진출하는 해외언론 및 인터넷통신국을 착공한 북한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뉴스 송출을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을 예정임. 「BBC」는 2013년에 대북방송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 1월에도 북한에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한편 엠마누엘 어그 AFP 회장은 평양지국 개설 계획 관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수개월 후에 북한 내에서 기사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힘. 중국 「신화망」에서는 AFP는 지난 몇 년 동안 지국 설립을 위해 북한과 소통해왔다고 전함. 현재 북한에 상주 지국을 개설한 곳은 중국과 러시아의 4개 언론매체이며, 미국 AP통신과 교도통신은 대리 지국을 설립함.

해외 언론의 움직임과 별개로 북한의 「조선의 오늘」에 의하면 북한 평양 인터넷 통신국 착공식이 25일 열렸다고 알려짐. 평양 인터넷 통신국의 설비와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음.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에는 지난달 평양의 양각도 호텔 등 1~2곳의 호텔과 순안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에 한해 인터넷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고 알려짐.

---

##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매일경제(11.9), 노컷뉴스(11.17)

아래 표는 11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한국 (에이스경암)	2015년 11월 27일	온실용품 및 비료	15톤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
한국 (아시아녹화기구)	2015년 11월 27일	묘목 및 종자	묘목 2만 3천그루 종자 4톤	에이스경암을 통해 지원함
중국	2015년	지원금	100만달러	WFP를 통해 지원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2015년 11월 25일	후원금	1억원	아시아녹화기구를 통해 후원하였으며,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후원금임

## 남북교류

### 〈개성공단〉

중앙일보(11.5)

#### 땅사용료로 갈등을 빚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북한 당국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개성공단 설립 당시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5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면제받은 바 있음. 따라서 2015년부터 북측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료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협상이 임박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한이 높은 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임.

---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 kseulki86@kdi.re.kr

## 기사 원문 리스트

- [2015.10.29] Frontier Market: North Korea Allows Reforms And Dandong Benefits (**Forbes**)
- [2015.11.1]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 (**노동신문**)
- [2015.11.3] 5세 미만 북한 아동 3분의 1 영양실조 (**한국경제**)
- [2015.11.3] WFP "대북 '영양지원사업' 내년 6월까지 연장" (**노컷뉴스**)
- [2015.11.3] 중국 지린성, "내년부터 두만강국제관광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노컷뉴스**)
- [2015.11.4] 북한·EU 작년 무역 76% 감소..."북 광물수출 중단 탓" (**연합뉴스**)
- [2015.11.5] 개성공단, 임금 협상 끝나니 땅사용료 갈등 (**중앙일보**)
- [2015.11.5] 北, 함경북도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 시작 (**노컷뉴스**)
- [2015.11.6] 북한-미국 올해 무역 80% 감소...美 대북 수입은 '제로' (**연합뉴스**)
- [2015.11.6] 북-중 연결 신두만강대교 내년 10월 완공 (**연합뉴스**)
- [2015.11.6] 10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드높이 (**민주조선**)
- [2015.11.6] '100년만의 가뭄' 北 심각...식량공급 차질·내륙 피해집중 (**news1**)
- [2015.11.7] 法新社將落户平壤 西媒在朝鮮如何搞报道? 新華網[신화왕]
- [2015.11.9] 10월 방북 인원 20배 급증...대북지원액은 11억원 (**매일경제**)
- [2015.11.11] North Korea looks set to profit from tourism (**CNBC**)
- [2015.11.11] China-N. Korea Trade Drops Again (**Voice of America**)
- [2015.11.16] 北 국경경비대 강냉이밥 150g '영양실조' (**NEWSIS**)
- [2015.11.17] North Koreans Turn to Schools to Barter for Goods (**Radio Free Asia**)
- [2015.11.17] 북·중 교역 침병 화교들, 장마당 주무르며 '돈주'로 등장 (**중앙일보**)
- [2015.11.17] 중국, 세계식량계획 통해 북한에 1백만 달러 지원 (**노컷뉴스**)
- [2015.11.18] North Korea Launches First National TB Survey (**Voice of America**)
- [2015.11.19] 이집트 오라스콤, 北 고려링크 계열사→협력사로 전환 (**연합뉴스**)
- [2015.11.19] 북, 나진·선봉특구에 18조원 투자...경제개방 박차 (**한겨레**)
- [2015.11.19] 北 "나선특구, 18兆 유치 물류·관광 허브로" ... 투자 받을 기업 공개 (**한국경제**)
- [2015.11.21] 朝鮮公布罗先特区开发规划 在韩舆论受到肯定 (**環球時報[한투스바오]**)

- [2015.11.23] 春秋航空申请开通浦东至平壤航线 每周各4班 ([东方网])
- [2015.11.24] 이집트 '오라스콤' 주가 폭락...北 '고려링크' 국유화 우려 (노컷뉴스)
- [2015.11.24] 영국, BBC 대북방송 등에 대규모 예산 지원키로 (Voice of America)
- [2015.11.24] '평양타치'로 쇼핑·수강, 북한 흔드는 '손전화' 370만 대 (중앙일보)
- [2015.11.26] 한수원, 아시아녹화기구에 北산림복구비 1억 (동아일보)
- [2015.11.26] 北, 평양 인터넷통신국 착공..."사회주의 건설에 중요" (연합뉴스)
- [2015.11.29] North Korean market attracts China's Spring Airlines (South China Morning Post)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